셀카 없는 삶에는 복음도 없다

(사무엘하 12:1~15)

1.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2.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3.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므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4.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5.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7.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셀카' 없는 삶에는 복음도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셀카' 없는 삶에는 복음도 없다

셀카 없는 삶에는 복음도 구원도 없습니다. 즉 스스로 찍는 사진이 없는 삶에는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은, 복음을 생활화 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믿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셀카'라는 말 자체는 영어 셀프카메라의 한국식 준말입니다. 외국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는 말은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행위나 그 사진 자체를 '셀피'라고 합니다.

'파파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리처럼 앵앵 거리며 달려든다고 해서 파파라치인데 유명 인사들이나 연예인들이 집요한 파파라치의 추적을 피해 다니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화장도 안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지내는 자기의 모습이 파파라치들에게 들킬까 몸을 사렸는데, 2013년부터 셀카 열풍의 풍속도 안에서 파파라치들이 그렇게 찍고 싶어 했던 유명 인사들이나 스타들

의 모습을, 스스로 찍어서 SNS에 올리게 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셀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12월 12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그 유명한 넬슨 만델라의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분에 걸친 열정적인 추모연설로 장내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리에는 오른쪽으로는 덴마크 수상과 영국 총리가 있었고 왼쪽에는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엄숙하고 슬픈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하얀 이를 드러낸 채 해맑게 웃으며 옆 자리의 영국 총리와 덴마크 수상과 셀카를 찍은 것입니다. 덴마크 여성 수상은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표정이 엄숙했는데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셀카를 찍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고 경거망동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2013년을 '셀피'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옥스퍼드 사전에서도 셀피가 그해의 단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셀피나 셀카의 열풍은 점점 더해가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카봉이라는 것도 나와서 강릉바닷가에 나가보면 셀카봉을 든 젊은이들로 바닷가가 꽉 차있습니다.

2013년 뉴욕포스트에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셀카"라는 제목의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브루클린 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과 구조대원과 대치하고 있는 장면을 배경으로 SNS에 올렸는데 이기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또한 극한의 셀카도 있는데 절벽 끝이나 고층빌딩의 옥상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서 자기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도중에도 셀카를 찍고, 우주비행사 마이크 홈킨스는 우주정거장을 수리하기 위해 우주유영을 하는 도중에 셀카를 찍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셀카를 찍다가 죽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있는 포루투칼의 호카 곶에서 폴란드인 부부가 셀카를 찍다가 두 아이들을 남긴 채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한 청년이 장전된 줄도 모르고 권총 방아쇠를 자기를 향해 당기는 셀카를 찍다가 죽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셀카를 찍다가 트럭에 받혀서 죽기도 하고, 해안절벽에서 셀카를 찍다가 떨어져 죽기도 했습니다. 이 셀카 열풍 속에서 웃지 못 할 해프닝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셀카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신앙인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셀카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복음도 없고 복음에 대한 효용성이 사라집니다. 다만 보통의 셀카와 다른 점은 얼굴을 찍는 셀카가 아니라 마음을 찍는 셀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7:23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절규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합니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보는 점에서 셀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셀카로 비난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 마음의 셀카를 찍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셀카를 찍지 않으면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셀카를 찍듯이 우리도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라도 내 마음의 셀카를 찍어야만 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것은 마음의 셀카를 찍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음의 셀카를 찍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나타나서 밧세바를 범한 죄악을 책망합니다. 이 책망을 받아들인 다윗이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자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지만 그 죄악에 대한 후유증(형벌)으로 재앙들이 임하게 될 것이 예언됩니다.
나단은 악한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다윗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다윗이 셀카 찍는 것을 망각하고 살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파파라치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지요. 다윗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파파라치가 사진을 찍듯이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사실 선지자나 예언자의 존재는 없는 편이 좋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밀착하여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 선지자나 예언자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셀카를 찍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마음을 찍기 위한 카메라는 지금도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고 창조 전에도 진행되었던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왜 나의 마음을 찍는 셀카가 되느냐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가지시는 관계의 자리에 우리가 초청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카메라가 되어서 지금의 내 마음 상태를 찍으면 나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 가에 따라서 내 마음의 모양이 결정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흉측해집니다.

다윗을 보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탐심이 생겼을 때 셀카를 찍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들이,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절박한 순간에, 우주를 유영하는 우주비행사가 극한의 순간에도 셀카를 찍는 것처럼, 밧세바를 보면서 탐심이 생기는 그 순간에 셀카를 찍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서도 셀카를 찍으려고 하고,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서도 셀카를 찍다가 죽는 것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찍었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최초의 탐심의 순간을 지나쳐서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서라도 자신의 마음에 대한 셀카를 찍었어야만 했는데, 그러한 순간을 계속해서 넘어가서 아기가 태어나는 시점까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얼마나 멀어졌는지 스스로 깨닫기를 일 년이나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간격이 멀어져서 흉측하게 된 마음의 셀카를 찍기를 바라셨던 것인데,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보기를 중단하였고 나단 선지자가 어쩔 수 없이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불행한 일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흉측해져 가는 모습을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와 사시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시던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보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만날 때에 기쁨이 생겨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마음에 기쁨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기뻐함으로 셀카를 찍으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나의 인격이 찍힐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만족한 나의 모습보다도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밧세바가 들어왔던 것이고 마음은 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움은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책꽂이에 김치를 올려놓으면 둘 다 더러워지고, 밥그릇에 밥을 담지 않고 깨끗한 방바닥에 밥을 쏟아놓으면 둘 다 더러워질 뿐입니다. 밧세바 여인은 더럽지 않았고 다윗의 마음도 더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자리에 밧세바가 들어오자 더러워진 것인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자녀가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먼저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갖지 않은 채로 자녀와 관계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더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사업도 더러워지고 나도 더러워지고 마는데 이러한 모습을 셀카로 찍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사업이 위기의 상황에 처했더라도 절벽에 밧줄로 묶여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고, 낙하산을 펼치지 않으면 몇 초 뒤에 그대로 땅에 꽂아 박을 상황의 스카이다이빙의 위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셀카를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이 위기에 있더라도 마음의 셀카를 찍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 사업 중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를 찍어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셀카를 찍어서 SNS에 올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의 카메라를 가지고 지금 내 마음을 찍어서 십자가에 올려야 합니다.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서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 마음의 셀카를 찍어서 하나님과의 간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간격이 생겨 추해져버린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올려서 죽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과 예수님이 가지시는 관계의 자리로 초청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셀카는 이기적인 셀카이고 극한의 셀카이며 찍다가 죽는 셀카입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내 마음의 관심은 셀카를 찍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항상 내 마음이 어떤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내게서 웃음이 나온다면 웃고 있는 나를 셀카로 찍습니다. 웃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아버지 때문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돈 때문에 좋아하고 있다면 웃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으로 인해 돈을 벌 수 있고 그 뜻대로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었기 때문에 좋아한다면 간음이고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가운데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웃는다면 이것은 죄악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셀카를 찍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간격이 멀어짐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으로 인해 슬퍼한다거나, 하나님과 밀착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과 밀착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갖기를 소원하는 내 모습이 찍힌다면 끊임없이 십자가에 올려서 죽었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오직 주님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처럼 나도 하나님아버지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야 함을 믿는 것이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다윗이 빠진 함정보다 더 깊이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셀카가 복음을 생활화하게 합니다. 셀카는 이기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극한적 상황에서도 아무리 삶이 급박하더라도, 내 마음이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세상 것이 있어서 좋아하고 없어서 슬퍼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찍어야 합니다. 이 마음의 셀카 작업이 중단된다면 십자가 생활화도 중단 될 것이고, 실재(實在)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도 끝날 것이므로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도 아닙니다. 셀카를 목숨 걸고 찍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가 어디서든지 해야 할 일은 하늘에서 진행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카메라로 삼아 세상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셀카 찍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